

### 필리핀 사회기반시설의 황금기 경제 성장의 밑거름 될 것인가?

Ruben Carlo Asuncion Economist  
Asian Development Bank

#### ■ 주요 내용

- 지난 2016년 7월, 현 필리핀 재정부 장관 벤자민 디오크노 (Benjamin Diokno)는 향후 6년 동안 두테르테 행정부가 필리핀을 “사회 기반 시설의 황금기”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발표함.
- 필리핀 발전 계획(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, PDP) 2017-2022는 국내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을 끌어올릴 두테르테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.
- 두테르테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 확대는 필리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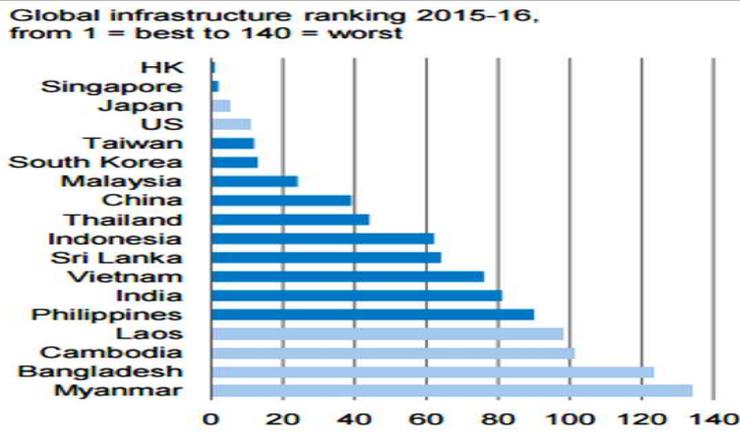


## 1 이슈 현황

☒ 지난 2016년 7월, 현 필리핀 재정부 장관 벤자민 디오크노(Benjamin Diokno)는 향후 6년 동안 두테르테 행정부가 필리핀을 “사회 기반 시설의 황금기”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발표함.

-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시정연설에서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약 이행 의지를 표명함.
  - 국도와 교량 시설 기반을 개선하고, 민다나오 물류 사회 기반 네트워크 (Mindanao Logistics Infrastructure Network, MLIN)와 주요 도로 네트워크 종합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을 확대
  - 사회 기반 시설 증설을 통해 수천 개의 섬을 잇는 교량 연결 프로젝트를 추진
  - 마닐라 지하철과 그 주변 지역에서 매년 반복되는 홍수를 극복하기 위해 피해 저감 대책을 시행
  - 민다나오 철도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 전략 지역에서 다양한 철도 사업을 추진
  - 생글레이 포인트(Sangley point), 카비테(Cavite), 클라크(Clark), 팜팡가(Pampanga) 등 신공항 건설 지역을 포함해 현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(Ninoy Aquino International Airport, NAIA) 의 혼잡을 완화함.
  - 관광지에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도로와 교통 시설 기반을 증설
- 2017년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 상정된 필리핀 예산은 8,607억 필리핀 페소(약 179억 3,000만 달러)로 2016년 배정액보다 13.8% 증가함.
  - 이 중, 3,557억 필리핀 페소(74억1,000만 달러)는 국내 도로 네트워크, 철도, 항구 그리고 공항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할당될 것으로 예상됨.
- 2016년 8월, 재정부(the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, DBM)는 2017년 필리핀 국가 예산으로 3조3,500억 필리핀 페소(697억9,000만 달러)를 상정함.
  - 공공 사회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지출은 2017년 GDP의 5.4%에 달할 예정임.

그림 1. 글로벌 사회 기반 시설 순위



자료 : WEF

-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, WEF)의 글로벌 사회기반시설지수(Global Infrastructure Index, GII)에 따르면, 필리핀은 주요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시설 기반이 뒤쳐져 있음.
- 국제통화기금(International Monetary Fund, IMF)에서 진행한 한 연구는 필리핀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GDP의 2.4%를 공공 투자에 사용한 것을 보여주는데, 이는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.
- 결과적으로 필리핀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민관 공동사업(Public-Private Partnership, PPP)의 증가에 전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(Benigno Aquino) 3세 정부부터 증가하고 있음.

그림 2. 동남아시아 국가별 공공 투자액 동향



자료 : WEF

- 두테르테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회 기반 시설의 공공지출을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,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필리핀 경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됨.

## 2 원인 분석

☒ 필리핀 발전 계획<sup>1)</sup> 2017-2022는 국내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을 끌어올릴 두테르테 정부의 강한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고 있음.

- 필리핀 발전 계획 2017-2022는 두테르테 행정부가 강조한 10가지 경제 개혁안을 기준으로 하며, 주요 개혁 방향은 아래와 같음.
  - 사회자원과 투자 환경의 최적화
  - 사회 기반 시설에서의 투자증가
  - 사회 기반 시설 발전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키울 것
  -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자연재해를 완화
  - 생산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
- 두테르테 행정부의 10대 개혁안은 현 필리핀 거시경제 정책인 누진세 개혁과 효율적인 세금 행정, 경쟁력 강화를 통한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함임.
- 이번 두테르테 정부는 공공지출 부문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민관 공동사업 (Public-Private Partnership, PPP)을 확대할 예정임.
- 도시와 지방을 연계한 균형 발전을 위해, 외부 투자를 활성화하고,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소유권의 안전성, 인력 자원 투자, 과학 기술, 사회 안정망 개선, 가족 계획법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임.
- 필리핀 국회가 발의한 국가 예산 법안을 보면, 두테르테 행정부가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을 과거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, 올해 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.

## 3 전망과 시사점

☒ 이번 두테르테 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출 확대는 필리핀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될

1)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, PDP

**것으로 예상됨.**

- 국제금융기구(IMF)의 정책 연구 보고서인 “필리핀 공공 사회 기반 시설 개선 (Improving Public Infrastructure in the Philippines)”에 따르면, 필리핀의 공공 사회 기반 시설 개선이 가져오는 거시 경제적 효과는 공공투자 확대 및 효율성 개선은 국가의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함.
-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모형 시뮬레이션에서, 공공사회 기반 시설 투자는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함.
- 시뮬레이션 결과, 민관 공동사업, 투명성, 그리고 국내 사회 기반 시설 발전의 신뢰도 증가의 필요성을 보았을 때 공공투자 효율성 개선이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.
- 이번 두테르테의 10대 개혁안 정책이 계획대로 수행된다면, 앞으로 6년이 필리핀에 “사회 기반 시설의 황금기”가 될 것임. **EMERiCs**

**출처**

Komatsuzaki, T., 2016. “Improving Public Infrastructure in the Philippines”, IMF Working Paper WP/16/39, International Monetary Fund.

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1-2016.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, Mandaluyong City, Philippines.

Global Infrastructure Index, 2015. World Economic Forum, Switzerland.